

청소년필독교양도서

고산곡

명수필선집

김엽, 최리화 편



연변인민출판사

청소년들필독교양도서

한국명수필선집

김엽, 최리화 편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최리화

책임교정: 김홍화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韩国名随笔选/ 金叶, 崔梨花编.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6. 9

ISBN 7-80698-776-2

I. 韩... II. ①金...②崔... III. 随笔—作品集—
韩国—现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312.665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6)第115334号

韩国名随笔选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印刷: 延边新华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50×1168 1/32 印张: 7.25 字数: 150 千字

标准书号: ISBN 7-80698-776-2 / I·113 (民文)

版次: 2006年9月第1版

2006年9月第1次印刷

印数: 1-1000册

定价: 19.8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머리글

근년에 와서 우리 조선족문단에는 문학장르의 하나인 수필이 이채를 띠고있다. 그러나 수필에 대한 애독자들의 관심을 감안할 때 우리 서재들에 세계적으로나 나라적으로 명목을 띤 그럴듯한 수필선집이 채겨져있지 못한것은 실로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시대적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하여 동양의 또 하나의 수필왕국인 한국의 명수필선집을 묶었다. 주지하다싶이 조선과 더불어 한 뿌리에서 뻗어나온 한국의 현대수필은 백여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지니고있는바 향토적이면서도 생활맛이 짙은 것이 그 개성적인 특징으로 되고있다. 이 선집에 수록된 43편의 문장은 한국현대수필문학사에서 정평을 받은 작품들인 동시에 최근 한국의 광범위한 독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있는 새로운 작품들이다. 편집에 있어서 독자들의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여 재래의 년대기적라열을 제쳐놓고 주제에 따라



7개의 단락으로 나누었으며 그것을 다시 서정적수필, 비판적수필, 이론적수필 등 3개의 큰 단락으로 분류했다.

우리는 모쪼록 이 선집이 좋은 수필을 찾는 독자들에게나 수필을 쓰려는 사람에게 성실한 길잡이가 될수 있기를 기원하는바이다. 우리는 또 이 선집이 한창 성장기에 처한 광범위한 청소년들에게 훌륭한 사상과 리념을 키울수 있는 덧거름과 촉매물이 되기를 바라마지않는다.

편자로부터



차 례

1. 생활의 이모저모

나의 사랑하는 생활	피천득 / 2
손자에게서 배운다	김정한 / 6
작품애	리태준 / 12
수염	공덕룡 / 17
랭면기	차주환 / 24
하나의 풍경	박연구 / 28
지붕을 고치며	손광성 / 32

2. 세월의 한때

크레용	김동석 / 41
봄	피천득 / 45
여름밤	로천명 / 48
권태	리 상 / 51
양잠설	윤오영 / 72
락엽을 태우면서	리효석 / 77
레몬이 있는 방안	리영희 / 82
백설부	김진섭 / 85



초설에 부쳐서	류달영/ 92
아름다운 소리들	손광성/ 97

3. 사랑, 고뇌와 소망

도마뱀의 사랑	리범선/ 105
가난한 날의 행복	김소운/ 108
미운 간호부	주요섭/ 114
청춘레찬	민태원/ 116
한눈 없는 어머니	리은상/ 120
지하철에서	리구영/ 124
행복의 이웃에 산다	천경자/ 130
모기이야기	범 정/ 134
꼭같은것보다 다 다른것이 더 좋아	윤구병/ 138

4. 사색과 느낌

나무	리양하/ 149
그믐달	라도향/ 153
마고자	윤오영/ 155
얼굴	조경희/ 158
월부도적	리웅백/ 164
신록의 녀인	박연구/ 166
비닐우산	정진권/ 170



있음의 흔적
회전문

리정림/ 175
럼정임/ 180

5. 향수와 려정

하루살이와의 재회
노란 종이우산
책

김병규/ 186
남미영/ 192
리태준/ 197

6. 삶의 예지와 진리의 썸

없는이의 행복
길
꽃씨 만세

방정환/ 201
박이문/ 203
최종률/ 210

7. 글 쓰는 자세와 수필

글을 쓴다는것
수필

김태길/ 216
피천득/ 222



1. 생활의 이모저모



1

생활의 이모저모

나의 사랑하는 생활

피천득

나는 우선 내 마음대로 쓸수 있는 돈이 지금 돈으로 한 오만원쯤 생기기도 하는 생활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돈으로 청량리위생병원에 낡은 몸을 입원시키고싶다. 나는 깨끗한 침대에 누웠다가 하루에 한두번씩 따뜻하고 깨끗한 물로 목욕을 하고싶다. 그리고 우리 딸에게 생일날 사주지 못한 비로도바지를 사주고 안해에게는 털실 한폰드 반을 사주고싶다. 그리고 내것으로 점잖고 산뜻한 넥타이를 몇개 사고싶다. 돈이 없어서 적조해진 친구들을 우리 집에 청하고싶다. 안해는 신이 나서 도마질을 할것이다. 나는 오만원, 아니 십만원쯤 마음대로 쓸수 있는 돈이 생기는 생활을 가장 사랑한다. 나는 나의 시간과 기운을 다 팔아버리지 않고 나의 마지막 십분의 일이라도 남겨서 자유와 한가



함을 즐길수 있는 생활을 하고싶다.

나는 잔디를 밟기 좋아한다. 젖은 세사(가는 모래)를 밟기 좋아한다. 고무창 댄 구두를 신고 아스팔트우를 걷기 좋아한다. 아가의 머리칼을 만지기 좋아한다. 새로 나온 나무잎을 만지기 좋아한다. 나는 보드랍고 고운 화로불채를 만지기 좋아한다. 나는 남의 안해의 수달피목도리를 만져보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안해에게 좀 미안한 생각을 한다.

나는 아름다운 얼굴을 좋아한다. 웃는 아름다운 얼굴을 더 좋아한다. 그러나 수수한 얼굴의 웃는 모습도 좋아한다. 서영이 엄마가 자기 아이를 바라보고 웃는 얼굴도 좋아한다. 내 아는 녀인들의 인사대신으로 웃는 웃음을 나는 좋아한다.

나는 아름다운 빛을 사랑한다. 골짜기마다 단풍이 찬란한 만폭동앞을 바라보며 걸음이 급하여지고 뒤를 돌아다보면 더 좋은 단풍을 두고 가는것 같아서 어쩔줄 모르고 서있었다. 예전 우리 유치원선생님이 주신 색종이같은 빨간색, 보라색, 자주색, 초록색 이런 황홀한 색깔을 나는 좋아한다. 나는 우리 나라 가을하늘을 사랑한다. 나는 진주빛, 비둘기빛을 좋아한다. 나는 오래된 가구의 마호가니



빛을 좋아한다. 늙어가는 학자의 희끗희끗한 머리칼을 좋아한다.

나는 이른아침 종달새소리를 좋아하며 피꼬리소리를 반가와하며 봄 시내물 흐르는 소리를 즐긴다.

갈대에 부는 바람소리를 좋아하며 바다의 파도소리를 들으면 아직도 가슴이 뛴다. 나는 골목을 지나갈 때에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이나 서있게 하는 피아노소리를 좋아한다.

나는 젊은 웃음소리를 좋아한다. 다른 사람 없는 방안에서 내 귀에다 귀속말을 하는 서영이 말소리를 좋아한다. 나는 비 오는 날 저녁때 뒤골목선술집에서 풍기는 불고기냄새를 좋아한다. 새로운 양서(서양책)냄새, 털옷냄새를 좋아한다. 커피 끓이는 냄새, 라이라크의 길은 냄새, 국화, 수선화, 소나무의 향기를 좋아한다. 봄 흙냄새를 좋아한다.

나는 사과를 좋아하고 호두와 잣과 꿀을 좋아하고 친구와 향기로운 차를 마시기를 좋아한다. 군밤을 외투호주머니에다 넣고 길을 걸으면서 먹기를 좋아하고 찰스강변을 걸으면서 팔던 콘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나는 아홉평 건물에 땅이 오십평이나 되는 나



의 집을 좋아한다. 재목은 쓰지 못하고 흙으로 지은 집이지만 내 집이니까 좋아한다. 화초를 심을 뜰이 있고 집 내놓으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될터이니 좋다. 내 책들은 언제나 제자리에 있을수 있고 앞으로 오래동안 이 집에서 살면 집을 몰라서 놀러 오지 못할 친구는 없을것이다.

나는 삼일절이나 광복절 아침에는 실크모자를 쓰고 모닝코트를 입고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러나 그것은 될수 없는 일이다. 여름이면 베고의 적삼을 입고 농립모를 쓰고 짚신을 신고 산길을 가기 좋아한다.

나는 신발을 좋아한다. 태사신(옛날 남자들이 신은 신), 이름 쓴 까만 운동화, 깨끗하게 씻어놓은 파란 고무신, 흙이 약간 묻은 탄탄히 삼은 짚신, 나의 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작고 아름다운것들을 사랑한다. 고운 얼굴을 욕망없이 바라다보며 남의 공적을 부러움없이 찬양하는것을 좋아한다. 여러 사람을 좋아하며 아무도 미워하지 않으며 몇몇 사람을 끔찍이 사랑하며 살고싶다. 그리고 나는 점점 늙어가고싶다. 내가 늙고 서영이가 크면 눈내리는 서울거리를 같이 걷고싶다.



손자에게서 배운다

김정한

《철범》이란 이름을 가진 외손자놈은 내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산다. 제 동생을 업은 어미의 손에 매달리거나 혹은 외할머니 등에 업혀서 사흘이 멀다 하고 내 집을 찾아오는 아직 세살도 채 못되는 꼬마다. 그런데도 말을 곧잘한다.

물론 남이 들어서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소리들이다. 《끼야》니 《또또야》니 《뽀빠야》, 《동냥집》…이런따위들이다. 《끼야》는 외할아버지인 나를 가리키는 말이고 《또또야》는 공부, 《뽀빠야》는 제 애비, 《동냥집》은 은행을 말한다. 놈의 이러한 기괴한 말들에서 나는 인간의 위대한 창조력을 새삼스레 생각해본다.

번거롭지만 그런 말들이 생긴 유래를 더듬어보면 《끼야》란 말은 놈이 더 어렸을무렵 제 어미의



등에 업혀왔을 때 내가 일부러 저를 놀려주기 위해 느닷없이 방바닥에 이마를 대고 흔들며 <킵! 킵!> 하는 피성을 내보았더니 <킵>이 <끼>로 들렸거나 혹은 <끼>로 발음이 되어서 된것이라고 추측된다. <또또야>와 <뽀빠야>는 제 아버지와 의 사이에서 만들어진 말이라는데 <또또야>는 글 읽는 소리나 혹은 쓸 때 나는 소리, <뽀빠야>는 제 아버지가 뽀뽀하며 놈의 뺨에 입술을 갖다댔던지 아니면 집을 나갈 때 <빠이빠이>라고 한것이 어떤 동기가 된것이 아닐가싶다.

그리고 <동냥집>은 내가 저를 안고 은행에 가 도장(놈은 도장을 동냥이라고 발음한다)을 누르곤 돈을 찾는걸 보고서 도장을 쓰는 집이란 뜻으로 쓰는 말인것 같다.

철범이는 이런 말 이외에 제 버릇이나 행동을 통해서도 곧잘 내게 어떤 암시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 소신을 실증해보이기도 한다.

언젠가 은행에서 나오는 길에 가까운 양식점에 데리고 가 목장우유를 사먹였더니 그다음부터는 은행에서 나올 땐 의례 그러는줄로만 알고 내 손을 끌어댄다. 또 양식점에 들어가 의자에 앉히면 부리나



케 신을 벗어나서 테이블 위에 놓거나 손에 꼭 쥐다.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해도 듣지 않는다. 고집이 또 여간 세지 않다. 틀림없이 나쁜 버릇일지 모른다.

그러나 저로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 양식 점에서 심부름을 하는 계집애가 귀엽다고 한번 놈의 신을 벗겨서 어디다 숨겨두고 애를 먹였기 때문에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이다. 아마 그 계집애가 바뀌지 않고서는 놈은 그런 버릇을 좀처럼 고치지 않을것이다. 아니, 그 애가 나가고 다른 애가 대신 들어오더라도 놈은 그녀를 얼른 믿어주지 않을게고 따라서 그런 제 버릇도 쉬이 고치려 들지 않을것이다. 그것이 놈의 잘못일까?

애 머리는 령리한편인데 글자를 잘못 쓴다고 제 어미가 한번 불평 겸 걱정을 하는것을 들었다.

《왜 <4>를 자꾸만 거꾸로 써능기요?》

아직 그런걸 가르칠 나이는 못되는데싶었지만 한번 써보라고 했더니 아닌게 아니라 <4>를 <7>로 그리지 않는가? 뿐만아니라 틀렸다고 했더니 저는 맞다맞다 하고 대든다.

나는 이것저것 시험을 해본 끝에 제 어미가 놈을 맞은편으로 앉혀놓고 가르쳤기때문에 그러한 결



파가 나타났다는것을 곧 알게 되었다.

이것은 지도자의 불찰이지 놈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아이들은 순진하고 정직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순진한 무위자연의 생활을 로자는 《아무런 허위허식이 없는 순진무잡한 어린이에 같은 심정으로 돌아가는것》이라 갈파하였다.

어린것들은 자기를 해롭게 하지 않으면 결코 반항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가 경험해서 좋게 생각한 일을 남에게 해주려고 든다.

할아버지들은 모두 손자들을 아끼고 귀여워하기때문에 손자들이 따른다. 철범이란 놈은 내가 보이지 않으면 뒤편에까지 찾아온다. 할머니가 더러운데라며 불러내려 해도, 또 내가 나가라고 타일러도 듣지 않는다. 도리어 앉아있는 내 턱밑에까지 조그만 손을 돌려안으며

《잡아주께이 두다리주까?》 하곤 다른 한손으로 내 등을 톡톡 두드려준다. 아마 제가 일이 잘 안보아져 고통스러웠을 때 제 어미가 더러 그렇게 껴안고 등을 두드려주었을지도 모른다. 틀림없으리라.

내가 일부러 숨을 크게 내쉬면

